

“과학 대중화의 초석을 놓겠다”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김홍석 회장



김홍석 회장. 협회에서 펴내는 《과학기술출판》과 《종합도서목록》.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의 올해 목표 중 하나는 곧 있을 과학저술인협회 세미나에 지원금을 보내는 일이다. 내로라 하는 국내 과학기술출판사 100여사를 회원으로 한 협회의 바람치고는 소박하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현실이다. 점차 줄어가는 문화체육부의 출판 지원에도 과학기술출판의 몫은 없고, 서점에서 과학기술서적들은 항상 구석진 자리를 차지한다.

“현대의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과학입니다. 과학기술도서의 출판은 과학 대중화에 초석이지요.”

김홍석 회장(57, 청문각 대표)은 과학기술 출판인들간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출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모임을 소개한다. 1994년 9월 창립한 협회는 과학기술출판의 현안에 관심을 둔다. 특히 우수한 저술인의 발굴로 질 높은 책을 펴내는 것과 서적의 보급을 통한 과학기술인구의 저변확대는 더 미뤄둘 수 없는 당면과제다.

저술인력의 부족은 환경·컴퓨터 등의 응용과학 분야보다 화학·물리와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더욱 심각한데, 이 분야의 성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학기술처, 문화체육부 등의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학저술인의 부족은 외국 저작물에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도 낳았다. 덕분에 작년부터 출판계 전체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저작권 문제가 과학기술출판계에도 중요한 안건이 됐다. 결국 ‘제살 깎아먹기’인 해외저작물 계약의 과당경쟁도 여기서 파생된다.

협회는 이같은 과학기술출판계의 여러 쟁점들을 공유하고 출판인들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위해 계간 《과학기술출판》을 창립과 동시에 발간해 왔다.

“그동안 저작권 문제, 외국 과학기술 출판의 현황,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학술회의 등의 내용을 다루며 전문출판인들로서 문제의식을 공유해왔습니다.”

올 봄호에는 과학기술 저술활동이 부진한 근본원인과 지원책 육성의 내용을 담은 박택규 교수(한국과학기술저술인협회 회장, 건국대)의 <과학저술활동의 어제와 오늘>을 특집기사로 다뤘다.

문형동 사무국장은 협회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전한다. 가난한 회원사들의 회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만을 찾아 알차게 운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일은 1년에 네 차례 발간하는 계간지 운영과 《한국과학기술종합도서목록》의 출간. 96년 처음으로 발간한 종합도서목록은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데, 올해에는 한국정보통신과 함께 CD-롬으로도 만들 계획이다. — 이현주 기자

적재적소에 책 전하는 ‘독보적 존재’

과학기술 전문 도매서점 ‘알파서적’

오후 4시, 서초동 알파서적(대표 이상대)은 출판사에서 입고되는 책과 소매상으로 출고되는 책이 들고 나느라 부산하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인 이 무렵, 10여명 남짓한 직원은 천정까지 닿아 있는 책꽂이가 모자라 탁자와 바닥에 책을 옮기느라 바쁘다.

알파서적은 과학기술 서적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매기구. 그만큼만한 도매상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된 곳이다. 동대문 도매상에서 출발하여 현재 동대문 알파서림과 서초동 알파서적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동대문의 알파서림은 이상대 사장의 형이 인수하여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알파서적의 본산은 서초동으로 옮겨온 셈이다.

알파서적의 ‘알파’는 ‘알파와 오메가’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알고파’의 준말. 100여평이 넘는 규모를 지닌 이 서점은 300여 출판사의 과학기술 도서를 수·발주하여 전국 소매서점에 유통시키고 있다. 대형서점과 직거래도매상도 많지만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알파서적은 과학기술도서 유통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다. 이사장이 알파서적을 꾸리게 된 것은 20년전. 친구가 하던 알파서적을 인수받아 지금까지 한길을 걸어왔다.

“전문서적은 전문도서유통업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떤 책이 어떤 서점에 유용한지 잘 아는 도매상이 적재적소에 상품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상대 사장(57)은 전문서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문서적 유통은 어려움이 많다. 수요의 80~90% 이상이 서울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지방판매망을 어렵게 뚫어도 반품률이 너무 많다. 또 전문출판계의 열악함 때문에 거래를 하던 출판사들이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관리가 어렵다. 재고 문제도 심각하다. 대부분의 전문서적이 그렇지만 특히 컴퓨터 서적은 버전업이 빠르므로 3개월만 지나면 재고가 된다. 외국의 전문서적업체는 주문생산체제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원한 것도 현실.

“무엇보다 전문서적 출판사가 튼실해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알파서적. 앞쪽에 있는 이가 이상대 사장.

유통과 도서보급도 알차질 것”이라는 이사장은 전문서적은 그야말로 한 우물을 파는 쪽이 현명하다고 지적한다. 가끔 과학기술 서적 업체들에서 문학서적을 내기도 하는데 90% 이상 실패한다는 것.

“전문지식과 제작경험 등 전문성이 생명인 전문기술서적 출판사가 우왕좌왕해서는 안됩니다. 근래 들어 컴퓨터 관련서를 내지 않는 출판사가 거의 없는데, 이에 기웃거리지 않고 토목건축같은, 특정분야 출판에만 힘쓰는 출판사가 오히려 성장하는 사례를 보기도 합니다”고 말한다.

비슷비슷한 책의 양산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전문서적 출판은 경험과 지식이 담긴 질적 출판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장의 소신. 전문서적 출판과 유통의 현안에 대해서 이사장은 무엇보다 서점이나 도매상, 출판사간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판은 지식산업입니다. 출판사와 도·소매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해야 상호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판계는 질적 출판을, 도·소매상은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 마정미 기자